

## 윌버의 통합적(Integral) 페미니즘에 대한 여성주의적 고찰

김 은 아<sup>†</sup>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본 연구는 통합적 페미니즘의 발전과 자아초월적 여성주의 상담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 Wilber의 통합적 페미니즘과 통합사상의 젠더관점을 여성주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Wilber의 통합적 페미니즘과 통합사상에 대해 그가 저술한 다양한 문헌들과 통합 공동체(integral community)의 젠더 관련 연구를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특히, Wilber의 페미니즘에 대한 관점, 섹스와 젠더 인식, 자기발달의 유형학에 초점을 맞추어 문헌들을 살펴보았다. 통합적 페미니즘은 여성의 경험과 젠더정체성을 전개인, 개인 영역을 넘어, 초개인적인 발달과정까지 확장하는 이론이다. 본 고에서는 젠더와 여성주의 이론을 통합적 페미니즘의 사상학적 틀을 활용하여 통합지도로 제시했다. 통합사상은 젠더를 인류와 개인의식 발달의 관점에서 이해한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근대에 구성된 젠더와 젠더정체성은, 탈근대로 발달함에 따라 초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리적 영적인 발달과 함께 모든 특성들에서 탈동일시 되는 자아초월적 젠더의식에 이르게 된다. 성별유형학은 다른 유형을 나누는 것과 달리 정치적 의미를 함의하고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차이가 형성되는 과정과 영향에 대한 민감한 통찰력이 필요하다. 통합적 페미니즘이 보다 입체적인 지도를 제공하면서 임상적인 실효성을 가지려면, 여성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문화적·사회적·정치적 맥락 속에서 젠더와 권력을 중심에 두고 이해하는 여성주의상담의 관점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여성주의 인식론과 여성주의상담의 성역할 분석, 권력분석 같은 기제들이 사상한간의 긴밀한 영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인간의식발달을 초개인 영역까지 포괄하여 제시하는 스펙트럼 이론과 의식발달을 위해서는 개인의 심리와 함께 사회적 체계가 변형되어야 한다는 통합사상의 관점은 자아초월적 여성주의상담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유용하다.

주요어 : 통합적 페미니즘, 여성주의상담, 자아초월적 여성주의상담, 젠더, 성역할 분석, 성별 유형

<sup>†</sup> 교신저자 : 김은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70길 8

Tel : 02-890-2800, E-mail : chalrasemo@hanmail.net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여성주의상담은 여성과 소수자의 다양성을 담는 포괄적 모델의 개발과 젠더의 이원성을 초월하는 자아초월적 여성주의상담 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다. 김민예숙(2011)은 한국 여성주의상담의 발전에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하여 미국의 여성주의상담 역사와 한국의 여성주의상담 역사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여성주의상담의 고유모델과 다문화적, 생태학적 새로운 패러다임이 개발되었고, 2000년대에 이르러 여성주의상담에서 영성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찍이, Brown(1994/2012)은 영적 또는 실존적 영역을 포함하는 더 나은 여성주의상담 이론의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한국에서는 김민예숙(2009)이 '젠더의 이원성을 비롯한 이원성 자체를 초월하는, 평등이 있는 평화를 지향하는 자아초월적 여성주의상담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여성주의상담의 필요성에 따라 Ballou, Matsumoto와 Wagner(2002)의 '여성주의적, 다문화적, 생태학적 새패러다임 모델'이나 김민예숙(2013)의 여성주의상담 '구조화 모델'이 연구되어 임상에 적용되고 있으나, 여성주의상담과 영성 또는 자아초월적 여성주의상담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서구에서는 두 개의 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하나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제도종교의 가부장성을 비판한 '페미니스트 영성'에 대한 연구이며, 또 하나는 자아초월심리학에 젠더 관점이 부족한 것을 비판한 자아초월적 여성주의 관점이다.

'페미니스트 영성'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기독교·개신교·유대교에서 시작되었는데 유일신적 종교에 여성주의가 미친 영향에 대한 개괄, 여성 영성의 역사에 대한 연구(Eller,

1995), 여신 숭배(Stuckey, 2010) 등이 있다 (Brooks, 2010). 페미니스트 영성은 여성주의적 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와 종교제도 안에서 여성의 역할과 젠더의 차이를 인식하고 가부장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여성의 영성에서 출발했다(문양효숙, 2006).

자아초월심리학 진영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의 비평은 1990년대 중반, Peggy Wright(1995, 1996)에 의해 시작되었다. Wright는 자아초월심리학의 대표이론인 Wilber의 통합사상을 분석하여, 자아의 상승과 초월을 중심으로 한 사다리 모형의 발달모델이 여성의 심리영적 발달을 포괄하지 못하며 여성의 경험과 젠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제기했다. Wilber(1998)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Re Vision"지誌에 Gilligan의 도덕발달이론을 '자기(Self)의 위계적 발달구조의 틀로 분석하면서, 여성주의 이론이 여성발달의 위계구조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Wilber(1998/2015a)는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적 성(gender)의 이슈에 대한 메타이론이 필요하며 '온 수준, 온 상한적 접근의 '통합적(integral) 페미니즘'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아초월심리학과 통합사상 내에 젠더가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여성주의 시각이 대두되었다.

자아초월심리학 진영의 여성주의자들은 영적 이해와 깨달음에 대한 여성들의 경험과 방식들, 여성들과 남성들의 영적인 길의 차이점, 여신-중심의 영성 같은 주제들을 연구하고 있다(Washburn, 2003). 이 연구들은 영적발달과 신성한 경험 속에 젠더의 차이들에 집중한다. 여성주의자들은 자아초월심리학이 높은 의식상태와 초월성을 더 특별하게 취급하고, 개인의 경험을 탈맥락화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체성에 대한 맥락적 고려가 시급하다고 지

적해 왔다(Brooks, 2010). Friedman & Hartelius (2013)는 『자아초월심리학핸드북』을 통해 자아초월심리학을 38개 분야로 나누어 망라하여 소개하였는데, 여성주의가 채택하고 있는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이 개인의 심리영적 발달과 변형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탐색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여성의 영적인 발달과 자아초월적 여성주의상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윌버의 통합사상과 생태여성주의의 비교연구(박선화, 2012), 장자의 성심사상과 여성주의상담원리 상관비교(고은희, 2014)가 발표되어 자아초월심리학과 여성주의, 영적사상과 여성주의상담의 상관성 연구가 시작되었다. 여성주의 영성에 대한 연구는 제도 종교에서 더 활발한데, 사회와 종교제도 안에서 여성의 역할과 젠더의 차이를 인식하고 가부장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기독교의 ‘페미니스트 신학’(강남순, 2002), 불교적 관점에서의 이원론적인 여성주의 인식론(고미송, 2010)에 대한 성찰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자아초월심리학의 여성주의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자아초월심리학 분야에서 유일하게 제안된 “통합적 페미니즘”을 여성주의 관점에서 고찰하여 자아초월적 여성주의상담의 토대로 삼고자 한다. 연구자는 자아초월적 여성주의상담을 지향하며 여성주의상담을 다른 이론과 접목하여 임상에서 활용하면서 통합사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통합사상의 AQAL<sup>1)</sup>은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영적인 이해를 제공하면서, 조건화된 자아를 변화시키고 자아를 넘어서 발달하는데 까지 조력할 수 있는 유용한 틀이다. 그러나, 여성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이나 젠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젠더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관심, 여성과 다른 종속적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구조에 대한 관심, 모든 여성의 경험에 대한 가치 부여(Worell & Remer, 2003/2004)’라는 여성주의 관점이 통합사상의 사상관과 결합된다면, 통합적 페미니즘과 자아초월적 여성주의상담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Wilber의 통합적 페미니즘을 살펴보고, 여성주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통합사상의 발전과 자아초월적 여성주의상담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것을 찾고자 한다.

## 연구문제

본 논문의 목적은 통합적 페미니즘의 발전과 자아초월적 여성주의 상담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것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Wilber의 통합적 페미니즘과 통합사상에 대해 그가 저술한 다양한 문헌들과 통합 공동체(integral community)의 젠더 관련 연구를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특히, Wilber의 페미니즘에 대한 관점, 섹스와 젠더 인식, 자기발달의 유형학에 초점을 맞추어 문헌들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통합적 페미니즘과 젠더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을 도표로 정리해 개략적인 이해를 돕고 파악할 수 있게 주력하였다. 본 연구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Wilber의 통합사상, 통합적 페미니즘의 메타이론 틀을 수용하며 그

1) AQAL(all-quadrants, all-level)은 온 상한, 온 수준적 접근은 상한, 수준, 라인, 상태, 유형의 다섯 요소가 포함된 개념으로 Wilber 후기 사상의 핵심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331에 기술되어 있다.

한계 내에서 이론적 틀을 고찰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연구의 범위에 다양한 자아초월적 패러다임이 포함되지 않았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통합적 페미니즘의 토대가 되는 Wilber의 통합사상을 소개한다. 다음에 통합적 페미니즘이 출현하게 된 배경이 된 Wright(1995, 1996)와 Wilber(1998)의 선행논문을 검토하여 90년대 논의들의 공헌과 한계를 분석할 것이다.

통합적 페미니즘의 발전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적 페미니즘을 여성주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여성주의 이론들과 젠더를 사상한에 의한 통합지도로 새롭게 분석한다. 먼저 Wilber(1998, 1998/2015a)의 논문과 간행물을 통해 통합적 페미니즘을 소개한다. 다음에 Enns(2004/2009)의 여성주의상담에 대한 개관을 통해 여성주의 이론을 사상한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또한 Wilber가 1998년에 제안한 통합적 페미니즘에는 젠더와 섹스에 대한 구체적 통합지도가 없기 때문에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Hildebrandt(2014)가 제시한 섹스, 젠더, 성적 정체성의 통합지도를 분석하여 젠더에 대한 지도를 제시한다.

둘째, Wilber 사상의 섹스와 젠더에 대한 이론을 고찰하고, 통합사상 체계에서 젠더를 성별유형으로 포함한 것을 비판한다. 이를 위해 1995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행된 그의 저서 『Sex, ecology, spirituality.』(1995), 『모든 것의 역사』(1996), 『아이 오브 스피릿』(1998), 『통합심리학』(2000), 『모든 것의 이론』(2000), 『통합비전』(2007), 『Integral spirituality』(2007a)에 나타난 젠더 관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통합 공동체의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의 통합적 목소리』(2014), 그 중 젠더와 여성주의 이론의 고찰

(Nicholson, 2014), 젠더와 의식의 발달에 대한 분석(Debold, 2014), 섹스와 젠더에 대한 발달적 관점(Ballin, 2014)을 통해 통합사상의 본질주의적 인식론을 비판할 것이다.

자아초월적 여성주의상담의 개념을 소개하고, 여성주의상담이 통합사상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을 분석한다. 자아초월적 여성주의상담에 대해 독창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연구자의 한계를 넘는 일이라 김민예숙(2010)의 연구에 의지해 소개할 것이다. 통합사상의 임상적 측면을 다루고 있는 『통합심리치료』(Marquis, 2011), Enns(2004/2009)가 소개한 새로운 여성주의상담모델을 위한 원칙, 『여성주의상담 모델』(김민예숙, 2103)을 통해 고찰할 것이다.

이를 통해 통합사상이 여성주의상담에서 수용할 것과 여성주의상담이 자아초월적 여성주의상담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통합사상에서 수용할 것의 시사점을 찾을 것이다.

## Wilber의 통합사상

Wilber의 통합이론은 모든 심리치료 이론 및 기법들을 상호보완적인 방식으로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포괄할 수 있는 메타이론으로서, 심리치료의 통합을 위한 다양한 요구를 흡수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문일경, 2009). Wilber의 사상은 1973년부터 5단계의 발전 과정을 거치며 심리학, 사회학, 진화학 등 근대학문과 동양 사상의 성과들을 종합하였고, 초월의식 영역을 포함하는 의식의 발달 도식을 제시하며 지속적인 이론의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는 1단계(1973~79년)의 첫 저서인 『의식

의 스펙트럼』을 출간하여 서양심리학과 근대 이전의 영원의 철학과 동양의 영적 전통을 결합하였다. 의식을 전자파와 유사한 파동의 다양한 층으로 보았으며, 인간은 건전한 자아를 발달시키고 궁극적으로 개인적 자아를 초월하는 동시에 내포하는 폭넓은 정체성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통합적 패러다임을 전개했다(Wilber 1998/2007b). 2단계(1980~83년)에서는 스펙트럼 모델에 발달심리학과 진화론을 도입하였고, 3단계(1983~1994년)에는 전의식과 초월의식의 혼동이라는 전초오류의 개념과 의식의 다양한 발달노선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4단계(1995~2000년)는 사상학과 3대가치를 정의하였는데, 『성, 생태, 영성(Sex, Ecology, Spirituality)에서 모든 개체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차원이라는 사상학적 관점을 도입하였다. Wilber는 통합적 의식발달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1999년 『통합심리학(Integral Psychology)』을 출간하였다. 통합심리학은 인간의식의 진화와 발달에 대한 이론으로, 발달과 진화에는 구조, 수준, 방향성이 존재한다.

5단계(2000년부터~현재)는 AQAL과 통합모델의 시기로, AQAL은 통합모델의 프레임워크이며, 통합적 심리치료에 필수적인 5가지 요소를 의미한다. 1998년에 통합연구소(Integral Institute)를 설립한 이후 현재까지 통합사상은 심리학을 넘어 정치, 거버넌스, 경제, 생태, 의학, 교육 등의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통합모델의 주요개념은 다음과 같다.

Wilber 사상을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최근의 개념이다. AQAL은 온우주the Kosmos와 인간 발달에 대한 개념적 지도로서 생명과 실재를 온전하게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이다(Wilber, Patten, Leonard & Morell 2008/2014). 아퀼AQAL은 사상학에서 제시했던 모든 상한, 모든 수준이라는 개념에 그의 의식발달이론에서 이미 사용되었던 수준, 발달 라인, 상태, 유형 등의 내용을 포괄하여 제시하고 있다(이한영, 2013).

그 중 상한은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바라보는 근본적으로 상호 연관되면서 상호 환원될 수 없는 네 가지 관점이다. 내부-외부 그리고 개인-집단이라는 두 개 축의 교차의 네 가지 분면인 사상학이 있다.

- 좌상상한/경험적: 의식의 주관적 측면 혹은 개인의 의식, 나-언어(I-language)
- 우상상한/행동적: 의식의 내적상태의 객관적 혹은 외면적 상관물. 그것-언어(it-language)
- 좌하상한/문화적: 집단의 내면, 집단이 공유하는 가치, 의미, 세계관. 우리-언어(we-language)
- 우하상한/사회적: 외적이고 물질적인 제도, 사회형태. 그것들-언어 (its-language)

즉, 인간의식발달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좌상상한)에 대한 탐구 뿐 아니라 뇌의 신경생리적 과정에 대한 연구(우상상한), 사회문화적 발달(좌하상한), 시스템적 발달(우하상한)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Wilber, 2000/2008).

AQAL(All Quadrants, All Levels): 모든 상한, 모든 수준

모든 수준 : 스펙트럼 접근

AQAL은 All Quadrants, All Levels의 약자로

수준이란 전의식에서 초의식에 이르는 의식 발달의 단계나 수준을 의미한다. 존재와 의식

은 물질에서, 신체, 마음, 혼, 영에 이르는 다양한 단계와 수준을 갖는다. Wilber의 스펙트럼 모델은 존재와 의식이 물질에서 영으로 진화할 때 전 단계를 포함하면서 초월해 간다는 '홀라키적 진화론'에 따른다. 그는 의식발달의 기본구조이자 수준을 영원의 철학에 기초하여 크게는 전개인적, 개인적, 초개인적이라는 세 단계, 이를 더 나누어 총 9단계로 구성하였다. 상위 단계들은 동시에 하위 발달 단계들을 포함하며 초월하고, 하위단계 발달의 결함들을 극복하도록 도와 하위단계들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발달론적 관점에서 보면 전관습, 관습, 후관습으로 나눌 수도 있고, 자아성장의 측면에서 보면 에고중심적, 민족중심적, 세계중심적 의식의 단계로 이해할 수도 있다(이한영, 2013). 의식발달은 '융합, 분화, 동일화, 탈동일화'의 공통적 메커니즘 과정을 반복하면서 진행하는데 정상적으로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리, 고착 등 병리의 메커니즘이 나타난다(박선화, 2012).

#### 모든 발달 라인 : 구체적인 발달의 측면

의식의 기본 수준을 따라 20개가 넘는 준독립적인 발달라인이 있다. 인간의식의 다중성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식이 하나의 발달노선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노선을 통해 발달한다는 것을 뜻한다(이한영, 2013). 발달 라인에는 인지, 자아-정체성, 대상관계, 도덕, 역할 취하기, 심리성, 정서 혹은 정동, 창조성, 미학, 이타주의, 대인관계, 영성, 가치, 욕구 그리고 세계관 등이 있다(Marquis, 2008/2011). 발달라인은 준독립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어떤 라인은 전개인의 영역에 있으면서 다른 라인은 초개인적 영역에 있을 수

있다.

#### 모든 상태

Wilber는 의식의 수준과 상태를 구분한다. 의식의 수준은 의식 안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구조 또는 특징을 의미하고, 의식의 상태는 보다 임시적인 특징을 의미한다(박선화, 2012). 상태는 각성, 꿈, 깊은 수면이라는 3가지 상태가 있다.

#### 모든 유형

유형이란 수준, 발달라인, 상태라는 수직적 측면에 있어서의 양 날개를 의미한다(이한영, 2013). AQAL의 상한, 수준, 라인, 상태는 수직적으로 정상적인 발달과정에서 모든 개인들이 통과하는 보편적인 단계인 반면, 유형은 수평적 수준으로 사람마다 각기 달라서 각 단계에서 발견할 수도 있거나 없는 것이다. Wilber는 남성성 여성성이라는 성별유형, 융의 유형, MBTI, 에니어그램 등을 제시한다.

#### 자기-체계

통합사상의 '자기(self)'는 기본구조를 향해하는 항해사이다. Wilber(1986)는 자기라는 것은, 궁극적인 관점에서는 착각이지만 중간 과정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자기는 새로운 수준으로 발달해갈 때마다 ① 새로운 구조와 동일시, 융합, 융해 ② 이전 구조와의 분리 ③ 이전 구조를 새로운 구조로 흡수 및 통합 등 1-2-3의 과정을 거친다(문일경, 2009).

### 1990년 후반 통합사상의 젠더 이슈

Wright(1995, 1996)는 자아초월심리학의 발달 모델과 그 토대가 가부장적이라고 비판하며, 젠더를 기반으로 여성의 경험을 포함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기하였다. 이에 Wilber는 남녀는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성중립적인 자기구조로 발달한다고 논평하였다. 이 논의는 통합적 페미니즘의 출현과 Wilber(2000/2008)의 저서 『통합심리학』에 여성의 도덕발달라인과 유형으로 반영되었다. 발달모델에 여성의 경험과 젠더이슈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남긴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기 위해 두 학자의 주장을 살펴보고, 여성적 자아와 젠더에 대한 연구자의 논의를 진행한다.

#### Peggy Wright : ‘투과적 자기’와 여성의 심리영적 발달

Wilber이론은 ① 정신역동 이론과 발달심리학 등의 서양심리학 ② 동양의 형이상학과 명상적 의식모델 ③ 실재는 존재와 인식 차원에서 물질, 신체, 마음, 혼, 영에 이르는 다양한 단계가 있다고 가정하는 영원의 철학이라는 세 가지 요소들이 발달모델에 통합되어 있다. Wright는 이 세 가지 요소에 여성의 경험이 축소되거나 빠져있고 남성중심적인 관점이 다수이기 때문에, 여성의 심리적 발달과 영적경험에 있어서의 젠더 관점이 포함된 균형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비평했다. 그녀가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초월적 발달모델에 여성의 경험과 자아를 설명하는 ‘관계 속 자아(self-in-relation)모델’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계 속 자아

는 “여성에게 자아의 중요한 경험은 관계적이라는 것, 즉, 자기는 중요한 관계의 맥락 속에서 구조화되고 발달한다”는 개념이다(Surrey, 1991). 여성의 자아는 관계 맥락 안에 자아-경계가 열려있는 투과적인 경계들로 형성되며, 이를 ‘투과적 자기’라고 명명하였다. Wilber의 발달모델은 분리된 자아를 기초로 하였으며, 자기를 경험하는 것에 있어 성적 차이를 다루지 않았다.

둘째, 투과적 자기는 초개인적 발달 경로에 영향을 미친다. 영적인 발달에서 점차적으로 경계 투과성이 증가되고, 상호의존의 경험이 심화되고, 모든 것들을 서로 엮어내며 변형될 수 있다. 투과적 경계들을 지닌 연결된 자아가 전개인, 개인, 초개인적 단계들 속의 발달라인을 초월한다.

셋째, 단선적 사다리모델이 아닌 그물망 모형의 발달모델이 필요하다. 서양심리학과 영원의 철학이 계층적이고 단선적인 사다리적 모형으로 발달을 구조화하는 것은 남성 심리의 반영일 가능성이 높다. Gilligan(1982/1997)의 ‘거미줄 같은 관계망으로 연결된 상호 의존적인’ 여성적 자아라는 개념을 개인, 전개인을 넘어 초개인적 발달전반으로 확대 할 수 있다. 여성적 자아는 타인과의 연결뿐만 아니라 몸, 감정, 마음, 영, 자연, 지구의 다양한 지점에 그물망 속에서 실처럼 닿을 수 있다.

넷째, 여성들의 영적경험은 남성들과 다르다. 여성의 종교적·영적 체험은 남성과 다른 경험과 발달의 길을 가는 것으로 묘사된다. 여성의 돌보는 역할이 수용성을 촉진하여 신비주의적 합일에 이르는 길을 쉽게 할 수 있으며, 어머니가 되는 경험은 사랑, 수용성, 무아를 촉진할 수 있다.

Ken Wilber : 성중립적 기본구조로  
발달하는 '투과적 자기'

Wilber(1998/2015a)는 Wright의 비판에 대해 여성주의자들이 발달에 있어 위계구조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며, Gilligan의 도덕발달 연구를 통합사상의 위계적 발달구조로 분석하였다. 또한 Wright가 제안한 여성의 투과적 자기를 일부 수용하며 남성과 여성이 성중립적 구조로 발달하지만 발달의 강조점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Gilligan의 여성의 도덕발달 연구는 위계적이며 선형적 모델이다. 남성과 여성은 도덕발달에 있어 세 개의 위계적 단계를 거치는데, 남성은 권리와 정의에, 여성은 배려와 책임이라는 판단기준을 근거에 두고 발달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적 발달단계들은 위계질서를 이루는데, 각 단계 내에서는 연결성이 주요한 판단기준이다.

둘째, 기본구조는 성중립적이며, 남성과 여성은 다른 지향성을 강조하며 발달한다. "남성은 독자성, 권리, 정의, 자율성에 강조점을 두고 확장되는 영역을 거치면서 발달하는 반면, 여성은 공동성, 책임감, 관계, 배려, 연결 짓기에 더 근거를 두고 동일한 홀론계층 영역을 거쳐 발달하는 경향"이 있다. 즉, 남성의 자기는 좀 더 독립적으로 여성의 자기는 좀 더 관계적으로 구축된다.

셋째, 투과적 자기도 자기중심, 사회중심, 세계중심으로 발달한다. 여성은 자아중심적으로 투과 가능하고, 사회중심적으로 투과 가능하며, 세계중심적으로 투과 가능하고, 영적으로 투과 가능하다. 이는 남성이 독자적 자아중심, 독자적 사회중심 등 독자성을 좀 더 강조하면서 발달하는 것과 같다.

넷째, 투과적 자기는 영적인 자기가 아니다. 여성의 투과적 자기도 그 성장, 발달, 변용을 거치며, 영적인 자기가 되려면 훈련이 필요하다. 일부 여성주의자들이 여성은 위계구조에서 완전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위계질서가 없고 그물망만 존재하는 모델은 여성 경험의 전체적 접근을 왜곡하고 여성발달에 대해 일관된 설명을 할 수 없게 한다.

Wright 비평의 성과와 젠더 관점의 한계

Wright의 비평은 통합사상을 비롯한 자아초월심리학 진영의 상승 중심적 발달모델이 가질 수 있는 한계와 여성의 경험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자아초월심리학내의 젠더이슈의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통합사상의 자기발달라인과 성별유형, 젠더 연구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Wright는 투과적 자기의 이론적 배경인 문화적 여성주의의 본질주의의 이슈는 논의하지 않았고, 투과적 자기가 구성되는 과정이나 자기가 발달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구체적인 것을 제시하지 못했다.

통합사상에 여성의 주관적 경험과 발달의 차이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만, 그렇다고 심리영적인 발달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다른 자아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남성이건 여성이건 모두 인간으로서, 자신을 타인과 구별되는 독특한 존재로 인식하고, 자신이 시간 장소에 걸쳐 동일성을 가진 존재라고 인식한다는 점에서는 여성의 자아가 남성의 자아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조혜자, 2002). 자아는 내재하는 특성이나 불변의 실체가 아니고, 맥락과 사회교환의 산물로서 상황에 따라 구성되는 것이다. 문화적 여

성주의 이론들은 입장에서 여성이 편안하게 느끼는 관계적 측면을 긍정함으로써 내담자에게 타당성과 위로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여성적인 특질을 개인적 특성이나 기본적 태도라고 여긴다는 측면에서 본질주의적 입장이 될 수 있다. 관계적 자아는 다양한 자아의 모습들 중 하나이며, 특정 조건과 상황에서 활성화되는 것이다. 남성은 주도적이고 독립적이며 여성은 친화적이고 관계적 특질이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기존의 젠더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자율성과 관계성이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놓치게 한다. 관계적 자아는 여성의 심리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 모두 사회와 관계 속에서 존재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아의 측면이다.

여성의 심리나 정체성은 남성/여성이라는 사회가 만든 이분법적 범주, 권력, 문화에 영향을 받으며 형성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더 관계적인 자아가 형성되었다면, 그 이유는 본질적인 차이 때문이 아니라 성역할, 지위, 권력의 차이, 고정관념 등 사회적 상황과 조건 때문이다. 최근 여성주의 논의는 Butler(2011/2013)에 의해 성과 젠더의 구별 자체를 해체하고, 고정되고 일관된 주체나 자아가 없다는데 까지 나아갔다. 자아가 유의미한 타자들이 개인에 대해 보여주는 태도와 사회 전반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반영하고, 사회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지위, 그리고 상호작용하는 언어 속에서 구성되는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자아의 탈현대적 이해는 여성들의 자아이해에 더 적합해 보인다(조혜자, 2002). 여성의 조건화된 자아를 이해할 때 사회 정치적 실체가 미친 영향을 인지하면서 개인의 주관성을 가치 있게 여기는 유연하고 통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 통합적(Integral) 페미니즘에 대한 여성주의 관점

### Wilber의 통합적 페미니즘

Wilber(1998/2015a)는 Wright의 비평에 응답하면서 수많은 페미니즘 학파가 다른 조망을 인정하며 수용할 수 있는 형식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섹스와 젠더 이슈에 대한 ‘온 수준, 온 상한’적 접근의 “통합적 페미니즘”을 제시했다. 여기서 통합이란, Wilber(2003)의 정의에 따르면 ‘종합적인, 포함하는, 전체적인, 포용적인’이라는 의미로서 이미 존재하는 패러다임들을 상호연관된 네트워크로 풍부하게 합의하여 방식이다. 그는 각 여성주의 학파가 오로지 한 개의 상한에만 중점을 둔다며 통합이론의 메타이론적 특성을 살려 여성주의를 사상한적으로 분석하였다.

Wilber(1998/2015a)는 남성은 독자성(agency)과 에로스 에 여성은 공동성(communion)과 아가페 에 중점을 두고 변환하는 경향이 있고,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발달의 파동이 보편적이며 성중립적이라고 분석한다. 또한 여성은 남성과 동일한 발달 수준을 거치지만 보다 투과적, 관계적 지향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성중립적이면서 지향성이 다른 ‘서로 다른 목소리’에서 나타나는 모든 파동과 상태, 지류들의 역학과 패턴을 탐구하는데 전념하기 위한 것이 통합적 페미니즘이다(Wilber, 2000/2015b). Wilber가 통합적 페미니즘으로 이해한 젠더는 양 성간에 태생적으로 유의미한 생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데, 젠더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관과 문화적 요소는 기술-경제적 토대와 사회구조에 영향을 받는다. Wilber가 여성주의 이론들과 젠더에 대해

표 1. 여성주의 이론과 젠더에 대한 Wilber의 사상학적 이해

	내면	외면
개별적	<b>좌상상한 Upper Left</b> • 여성 페미니즘: 여성의 투과적 자기 • 통합적 페미니즘: 성중립적 발달, 남성은 독자성과 에로스/여성은 공동성과 아가페에 중점을 두고 변환	<b>우상상한 Upper Right</b> • 급진적 페미니즘: 생물학적 근거(여성의 수유와 임신, 남성의 신체적 힘)를 받아들임.
	<b>의도의(주관적인)</b>	<b>행동의, 신체적인(객관적인)</b>
집합적	<b>문화적인(상호주관적인)</b> • 구성주의, 문화적 페미니즘: 섹스와 젠더에 대한 세계관과 문화적 요소	<b>사회적(상호객관적인)</b> • 마르크스, 사회주의 페미니즘: 기술-경제적 발달단계에 상응하는 젠더 역할
	<b>좌하상한 Lower Left</b>	<b>우하상한 Lower Right</b>

사상학적으로 이해한 것은 다음과 같으며, 표 1은 연구자가 Wilber의 논지를 정리한 것이다.

**우상상한(행동)**

우상상한은 개인의 외면, 개인 홀론의 객관적 측면으로 인간의 경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테스토스테론, 옥시토신, 에스트로겐의 영향과 같은 생물학적, 호르몬적 요소들을 포함한다.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사회생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양 성간의 유의미한 생물학적 근거를 받아들이고 있다. 여성은 출산과 수유를 남성은 신체적 힘과 운동성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남녀의 역할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소다. 또한 남성이 독자성을 향하고, 여성이 공동성을 향하는 데는 생물학적 근거가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수 백 년간의 자연적 선택의 산물이고 범문화적이다(Wilber, 1998; 1998/2015).

**좌하상한(문화)**

개별적인 생물학적 요소들이 존재하더라도,

집단의 내면이라는 강력한 문화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수정된다. 문화적 요소들은 많은 경우 생물학적 경향성들을 증가시키거나 중화시키거나 반전시킨다. 생물학적으로 불변하는 성차가 문화적 요소들과 영향에 의해 종종 극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히고 수정된다. 젠더의 형성과정에는 세계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세계관은 해당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가치영역들로부터 추출한 어떤 요소가 존중되는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섹스와 젠더가 전개될 때 상호 주관적인 문화적 요소가 수행하는 강력하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긍정하는데 있어 좌하상한의 중요한 접근들이 모두 결합되어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구성주의 여성주의자들과 문화적 여성주의자들이 좌상상한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들은 좌상상한만이 유일한 상한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수행자기모순에 빠졌고 다른 상한의 목소리와 다른 페미니즘 학파를 왜곡하고 있다(Wilber, 1998; 1998/2015).

우하상한(사회)

집단의 내면인 세계관은 집단의 외면인 사회적 구조와 분리되지 않는다. 세계관은 사회의 물질구성요소들, 생산, 기술양식, 건축구조, 경제기반, 지정학적 위치 등에 강하게 맞을 내리고 있다. 문화적 요소들은 사회적 연관성을 가지며 젠더의 쟁점과도 직접적 관련이 있다. 세계관은 토대를 따라간다. 성과 젠더 쟁점에 대해 인간종의 형성과정에 존재했던 5~6개의 주요 기술-경제적 발달 단계들에서 각각의 남성과 여성에게 가능했던 젠더 역할 유형이 있다. 수렵채집단계, 원예농업단계, 농업단계, 산업단계, 지식단계의 다섯 가지 기술 단계는 고태, 마술, 신화, 심적, 실존적이라는 상호작용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기술-경제적 토대는 해당 사회에서 진화적으로 유리할 남성과 여성의 가치영역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마르크스 여성주의, 사회적 여성주의가 우하상한의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기여했다(Wilber, 1998; 1998/2015).

좌상상한(의도)

개인 내면, 의식의 거주 장소인 좌상상한은 전인습, 인습, 후인습을 거치는 발달 지류로 구성된다. 의식의 스펙트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평적 차원의 변환과 수직적 차원의 변환을 유기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변환은 “공동성 내에서의 독자성 과정” 혹은 홀론과 환경변수간의 관계교환이며, 변환은 “더 높거나 깊은 영역의 이동”이다. 남성은 독립성에 역점을 두고, 여성은 공존성에 역점을 두고 변환되며, 남성은 에로스에 역점을 여성을 아가페에 역점을 두어 변환한다. 영적 페미니즘은

투과적인 자기를 곧바로 영적자기와 생태적 자기와 동일시하였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어떤 위계적 변용도 없게 되었다. 그러나 투과적 자기도 스스로 성장, 발달, 변형을 겪는다. 투과적 자기의 낮은 단계들, 전개인적 단계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애적이며 남성의 독립적 자기의 피상적 단계만큼 불쾌하다. 또한 투과적 자기의 낮은 단계는 생태적 약탈의 기여자이기도 하다(Wilber, 1998; 1998/2015).

통합적 페미니즘 비판과 여성주의 이론의 사상학적 분석

Wilber(1998/2015a)는 십 여 개의 여성주의 학파들이 동의하는 유일한 사항은 ‘여성이 존재 한다’는 사실이며, 여성의 목소리에 합의된 결론이 없기 때문에 통합적 페미니즘을 통해 여성주의 이론들의 서로 다른 조망을 인정하며 각각을 수용할 수 있는 형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위와 같이 여성주의이론들을 사상학의 틀로 분석하였는데, 하나의 여성주의 이론을 한 쪽 상한 중심으로 배치하고 각 분면간의 유기적인 상호영향이나 수준에 대한 논의가 없어서, 그의 이론이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을 넘어 어떻게 섹스와 젠더 이슈에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Wilber의 통합사상은 시론적이고 제언적 성격이 강하다. 이한영(2013)은 Wilber가 방대한 저서와 연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저서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체화시키기 보다는 방법론적인 제언의 성격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한다. 또한 각 사상을 엄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히 소개하지 않기 때문에 자의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특히 통합적 페미니즘은 여성주의에 대한 이해와 내용이 부

실하고 불충분하여 이론의 유용성을 찾기 어렵다. Wilber는 1998년 『켄 윌버의 아이 오브 스피릿』에서 통합적 페미니즘을 제안한 후, 2000년 『통합심리학』에서 “불행하게도 많은 여권론자는 통합적인 접근에 저항하는데, 종종 다른 상한을 무시하고, 한 개의 상한(보통 좌하상한 혹은 성의 문화적 구성)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라고 기술하여, 여성주의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성주의진영을 비판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Wilber가 페미니즘에 대한 세밀한 이해 없이 여성주의를 비판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여성주의 이론들이 젠더와 섹스, 여성억압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메타이론을 표방하는 통합적 페미니즘의

사상학적 방법론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여성주의 이론들을 보다 포괄적이고 유기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역사적으로 페미니즘은 하나의 고정된 의미나 실체를 가진 것이기보다는 다양한 갈래의 이념적 토대와 관점을 견지하는 사상, 이론, 행동주의(또는 운동)로 구성된 묶음이다(이재경, 2007). 여성주의이론이 나뉘는 이유는 여성문제와 가부장제의 원인에 대한 설명이 다르기 때문이다(김민예숙, 2013). 또한 여성주의 이론들은 Wilber가 인식하는 것처럼 상호 배타적이라기 보다 이론 사이의 경계가 유연하고 종종 겹쳐진다. 십 여 개의 여성주의 학파들 중에 여성주의상단에 영향을 미친 자유주의 여성주의, 급진적 여성주의, 문화적 여성

표 2. 여성주의 이론과 사상한

	내면	외면
	<b>좌상상한 Upper Left</b>	<b>우상상한 Upper Right</b>
개별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주의: 자율적, 성취적 자아</li> <li>• 급진적: 자신의 몸에 대한 스스로의 통제</li> <li>• 문화적: 공감, 민감한 자기, 영성 영성, 여신 영성</li> <li>• 포스트모던: 자아의 일시성, 비이원, 통합적 자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주의: 생물학적 차이보다 유사점 강조</li> <li>• 급진적: 재생산으로서의 몸, 여성의 몸에 대한 남성의 통제</li> <li>• 문화적: 여성의 몸 긍정</li> <li>• 포스트모던: 구성된 섹스</li> </ul>
	<b>의도의(주관적인)</b>	<b>행동의, 신체적인(객관적인)</b>
	<b>문화적인(상호주관적인)</b>	<b>사회적(상호객관적인)</b>
집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주의: 18~19세기 계몽주의 정치철학, 인간존엄, 평등, 합리성 등 가치관</li> <li>• 급진적: 성역할,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li> <li>• 사회주의: 공적·사적영역의 존중, 공동육아</li> <li>• 문화적: 돌봄, 공감, 관계중심적 문화</li> <li>• 포스트모던: 탈근대, 다원성, 언어권력 통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주의: 참정권, 교육법, 이혼법률, 복지 프로그램</li> <li>• 급진적: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법률, 강간위기센터와 쉼터, 동성결혼제도</li> <li>• 사회주의: 인종, 계급, 국적의 젠더영향력 분석</li> <li>• 마르크스: 자본주의사회와 계급구조 분석</li> <li>• 문화적: 전지구적 생태적 그물망</li> </ul>
	<b>좌하상한 Lower Left</b>	<b>우하상한 Lower Right</b>

주의, 사회주의 여성주의, 포스트모던 여성주의를 중심으로 여성의 젠더정체성과 그에 영향을 주는 생물학적, 사회문화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다.

자유주의 여성주의는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보다는 유사성에 초점을 맞추고 생물학적 성이 관습과 제도와 법률을 통해 성별사회화되는 것이 여성억압의 주된 요인이라고 보았다. 18~19세기 자유주의·계몽주의 정치철학의 영향 속에서 생겨난 자유주의 여성주의는 인간존엄, 평등, 자율성, 합리성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사회·자본주의 경제시스템과 관련된 법, 교육제도의 불평등이 여성억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관점이다. 여성을 남성과 같이 이성적 존재이며 자율적인 성취적 자아로 이해했다. 자유주의 여성주의운동은 참정권, 여성의 교육 참여, 이혼법률, 복지 프로그램 등에 영향을 미쳤다. 심리치료에서는 성편견적 진단을 제거하는데 기여했으며, 여성의 자아실현의 가능성을 열었다(Enns, 2004/2009).

급진적 여성주의는 생물학적 몸과 출산의 기능 등에 주목하여 여성이 생물학적 재생산을 거절하거나 과학발전으로 출산이나 몸의 통제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라는 젠더개념과 성역할이 생물학적 몸과 결합된 것에 주목하고, 여성의 몸에 대한 남성의 통제라는 문화적·사회적 권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급진적 여성주의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법률, 위기센터, 피해여성 쉼터, 동성결혼제도 변화에 기여했다. 상담과 치료에 있어서는 여성주의상담에서의 성역할분석과 권력분석 기법을 통해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이다”를 내담자 이해에

적용했는데, 이는 특히 사상환을 유기적이고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도움이 되는 관점이다. 피해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특성인 우울, 의존, 내면화된 분노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Enns, 2004/2009).

여성주의 사상 내에서 모든 양상의 여성들의 삶을 통합하는 ‘통합된 페미니즘’ 이론을 만들고자하는 시도는 사회주의 여성주의에 의해 추진되었다. 사회주의 여성주의는 억압이 젠더의 영향을 받지만 인종, 계급, 국적 등에 의해서도 형성된다고 본다. 인간의 잠재력 실현은 법적 제도적 변화만으로 가능하지 않고 사적인 영역도 재구성되어야 한다. 요컨대 사회주의 여성주의자는 억압의 교차반응 할 뿐만 아니라 평등을 가로막는 구조적이고 심리적인 장애를 제거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다(Ferree and Hess, 1985; Tong, 1998, Enns, 2004/2009에서 재인용).

문화적 여성주의는 부드러움, 조화, 감수성, 직관, 정서적, 대인관계적인 특성 같은 남성과 다른 여성들의 강점에 주목한다. 민감한 자기, 관계적 자기에 의미를 부여 했으며, 여성들의 영성, 여신 영성, 여성주의 영성에 기여했다. 평화와 협동 같은 여성적 특성들이 문화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여성심리 이론에서 관계적 자아모델, 여성의 도덕발달 모델, 원형 심리학으로 나타났다. 전 지구적, 통합적 공동체를 제안하고, 건강하고 균형 있는 생태계를 추구하며 모든 생명을 연결된 그물망으로 이해했다(Enns, 2004/2009). 출산과 재생산을 긍정적인 힘으로 재명명 하였는데, 급진주의의 분리주의와 함께 생물학적 본질주의와 연관되기도 하였다.

포스트모던 여성주의는 탈근대, 다원적, 포스트모더니즘에 영향을 받은 담론으로 남성/

여성, 이성애/동성애, 여성주의/비여성주의라는 양극화된 범주로의 정체성 개념화에 문제를 제기한다. 다양성과 언어의 권력에 대한 성찰을 제공한다. 포스트모던 여성주의의 비이원주의는 안정되고 일관된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통찰을 제공하고 통합적 자기에 영향을 준다(Enns, 2004/2009).

이와 같이 각 여성주의를 사상한으로 분석해본 결과 Wilber의 주장<sup>2)</sup>과는 달리 여성주의 이론들은 모든 상한들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여성의 목소리와 젠더를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주의 이론들이 발생초기에는 어느 하나의 상한을 강조하여 여성억압의 원인을 설명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또한 사회문화적이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강조점을 달리하는 것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여성주의 이론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서서히 발전하고 있다(Enns, 2004/2009). 특히 여성주의상당은 여성의 심리나 문제가 사회적·정치적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내면화거나 형성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젠더와 관련하여 성역할과 권력의 차이가 정체성과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통합사상의 AQAL은 의식의 발달이라는 수직적 차원과 각 상한 간의 수평적인 차원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유용한 틀을 가지고 있는 통합적 페미니즘이 여성주의 관점의 권력과 역할 위계에 대한 통찰을 포괄한다면, 통합사상은 더 포용적인 통합에 이를 것이다.

2) Wilber(1998/2015a); 섹스와 젠더에 관한 서로 다른 이론들은(페미니스트 이론뿐만 아니라 정통이론) 각각 오로지 한 개 상한에만(보통 한 상한의 한 수준에만) 중점을 두면서 자신의 이론을 전형적이면서도 배타적인 이론으로 만들려고 한다(p 244)

## 젠더와 사상한

젠더는 여성 억압의 중요한 측면이며, 문화, 계급, 연령, 인종, 민족성, 성적 지향, 능력, 언어의 지위를 포함하지만 이것들에 한정되지 않는 다른 억압의 형태들과 상호작용한다(Enns, 2004/2009). 먼저 섹스와 젠더의 개념을 살펴보면, 여성적(feminine), 남성적(masculine)이라는 단어는 1620년에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여성적, 남성적이라는 가치판단적 개념이 등장하자, 남성(man)은 남자(male)의 성기를 가졌기 때문에 남성적(masculine)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남성으로 보여줄 특징들을 표현하거나 길러야만 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변화는 남성정체성과 여성정체성에 대한 내면인식을 만들었다. 변하지 않는 몸을 상징하는 생물학적 성(sex) 또한 사회문화적으로 만들어졌다. 18세기에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관에 관련된 생물학적 이분법이 만들어지면서, 두 개의 안정적인 성과 그에 어울리는 성역할이 있다는, 두 가지 성 중심의 젠더 체계가 형성되었다(Laqueur, 1992/2000).

이렇듯 젠더는 규범적이고 정치적인 범주로서, 사상한적 틀을 활용하면 젠더체계가 한 사람의 젠더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998년에 Wilber가 제안한 통합적 페미니즘에서는 젠더를 사상한적으로 어떻게 이해할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표 3은 젠더의 구성과 변화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Hildebrandt(2014)가 제시한 “섹스와 젠더에 대한 통합지도”를 연구자가 수정하여 정리해본 것이다.

젠더의 구성을 개인의 탄생에서부터 이해해볼 수 있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생물학에 근거하여 병원에서 의사가 생물학적 성을 부여

표 3. 섹스와 젠더에 대한 통합지도

내면		외면	
개별적	<b>좌상상한 Upper Left</b> • 젠더 정체성(남성성, 여성성/ 다원적 정체성)	<b>우상상한 Upper Right</b> • 생물학: 표현형(phenotype), 호르몬, 뇌, 염색체, 이차성징들 • 젠더적 표현: 사회적 성 제시, 성별화 된 행동	
	<b>의도의(주관적인)</b>		
집합적	<b>문화적인(상호주관적인)</b> • 성 역할(Gender roles) • 젠더/섹스 고정관념 • 공사의 남녀구분, 젠더의 규범성	<b>사회적(상호객관적인)</b> • 부여된 섹스/젠더: 신생아에 대한 의사의 생물학적 성 부여, 서류기록들 • 주어진 젠더 • 사회적·정치적 성의 자기 동일시 • 섹스/젠더가 분리된 사회구조물: 직장, 교실, 스포츠, 화장실, 목욕탕 등)	
	<b>좌하상한 Lower Left</b>	<b>우하상한 Lower Right</b>	

하고, 법적·사회제도적으로 한 개인의 섹스와 젠더가 승인된다. 부모, 교육, 젠더고정관념 등의 문화적인 것들과 상호주관적인 관계를 맺으며 개인의 젠더 정체성이 형성된다. 성역할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감정과 성역할에 대한 신념은 성별화 된 표현이나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타인들은 젠더를 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분리된 화장실, 교실, 목욕탕 등 성별화 된 사회적 구조물과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도 개인의 젠더정체성에 영향을 준다. 젠더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성역할에서 자유로워지고 다양한 젠더 특성들이 균형을 이루며 발달하게 되면, 대인관계나 소속된 집단의 문화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사회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변화되는 문화와 사회구조는 다시 개인 내면과 상호작용하고 행동에 영향을 준다.

이와 같이 통합적 페미니즘으로 이해해보면 각 상한은 서로가 다른 상한의 원인이면서 결

과가 되고, 동시 발생적으로 나타나며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젠더정체성과 젠더체계는 상한의 '4중 그물망' 또는 '4중 상호작용'으로 연결되고 작용한다(Hildebrandt, 2014). 각 상한이 상호 얽여져서 작용되기 때문에, 젠더는 남성/여성이라는 고정된 이원적 체제라기보다는 각 부분간의 순환적인 사이클 내에서 계속적으로 구성되는 연속체로서 개념화 할 수 있다.

### 통합사상의 젠더 관점과 성별유형

#### 발달적 관점에서의 섹스와 젠더

Wilber는 전개인, 개인적 수준에서는 신체를 갖춘 존재로서의 남자와 여자라는 생물학적 성이 젠더와 밀접히 결합되어 있지만, 개인발달 후기부터 통합이 일어나며 초월적 단계에서 영은 남성이나 여성의 이분법을 넘어 발달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젠더에 있어 전체적으로 발달주의적 관점을 취하지만 발달의 낮은 단계에서는 생물학적 차이를 강조<sup>3)</sup> 하는 본질주의적 경향이 있다. Debold(2014)는 Wilber의 성적 호르몬의 차이에 근거한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차이의 설명이 당대에는 뛰어난 연구로 인정받았지만, 최신 연구들로 볼 때 높은 테스토스테론 수준들이 인간 남성에게 본질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Wilber의 젠더에 대한 관점은 1995년 “성, 생태, 영성”에서부터 여러 차례 변화를 보이는데 생물학적 성의 영향력에 대한 강조, 섹스와 젠더 개념을 혼용<sup>4)</sup>하는 과

정을 거쳐 2007년 “Integral Spirituality”에서는 건강한 여성적 원리, 남성적 원리를 설명하면서 남자/여자라는 생물학적 몸에서 성별특성을 분리하였다.

Wilber 이론의 중요한 체계 중 하나는 개인의 발달과 사회 문화 역사적 발달 사이에 유사한 패턴이 있고, 개인과 인류는 의식의 동일한 구조를 통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면 개인의 젠더와 의식의 발달은 인류가 시대적으로 처한 발달단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근대적 사고는 남성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적 지위로 인해 발달된 심리를 토대로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적 범주를 창출했다. 탈근대의 출현은 심리영적으로 새로운 발달의 가능성을 열었다. 탈근대는 민감성, 보살핌, 연결성, 깊은 자기 인식과 친밀감을 통한 관계를 중시하는데, 역사적으로 이러한 영역이 여성들의 영역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탈근대는 종종 여성적으로 불리고 남성/근대성으로 생긴 위기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되곤 한다. 그러나 근대와 탈근대를 성별 지위진 형식으로 구분하는 것도 이분법적인 근대적 사고이다.

- 3) 『모든 것의 역사』(1996)에서는 생물학적 차이가 젠더에 영향을 미치며,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이 내재하는 특성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남녀 간의 생물학적 성차는 너무나 강력한 기반이므로 이러한 차이가 문화 부문에도 침투하여 젠더의 차이로까지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젠더는 비록 문화적으로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생물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의 젠더에 있어서는 어떤 불변적인 것이 문화를 가로질러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p 27). 그는 특히 “성교를 하거나 죽이거나”의 충동을 일으키는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피부를 살짝 쓰다듬어 주기만 해도 여성적인 면이 넘치게 만드는 성향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예로 들며, 전자는 번식과 생존을 후자는 육아를 위한 것이라며, 젠더의 차이에는 생물학적 근거가 있다는 본질주의 관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 4) Bailin(2014)에 의하면 Wilber(2003)는 Kosmic Consciousness 대화에서 섹스와 젠더 개념을 혼동하여 사용하는데 “유형들의 전형적인 예는 남자(male)와 여자(female)유형이다”라고 유형 모듈을 소개하였다. 그 후에 ‘남자들도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가지고, 일부 남자들은 여성다움을 더 가지는데 일부 여자들도 마찬가지로이며, 고정적이지

않으며, 이것은 단지 에너지들 또는 자각들의 두 가지 유형들이다’라며,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의 융합을 바로 부인했다고 설명하였는데, 섹스와 젠더의 이론에 대한 혼란이 보여지는 부분이다. 『통합비전』(2000), 『Integral Spirituality』(2007)에서는 “남성(masculine)”과 “여성(feminine)”을 유형의 예로 사용한다. 그러나 유형을 설명하는 부분의 제목을 “What Type : Boy or Girl?”으로 붙이는 혼란을 보인다. 또한 Gilligan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유형의 예로서 “남자는 행동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으며, 여자는 교류를 지향한다. 남자는 규칙에 따르려고 하고, 여자는 연결을 맺으려고 한다”고 한다. 이러한 논리전개는 전형적인 젠더 고정관념적 서술이며, 한 개인 안에 존재하는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유형 설명이 아니다.

내면의 탈근대적 진보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나타나고 성별지어지지 않는다(Debold, 2014).

Wilber(1996/2004)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만들어온 근대의 정체성과 젠더를 넘어서는 진화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화에 관한 전체적인 요점은 이전에 발생한 무언가를 항상 넘어간다는 것이다. 다음 걸음은 성별지어진 존재로서의 자기-구조들을 넘어서는 것이다. 의식 진화의 거대한 프로젝트에서 분리된 양극성을 넘어, 주도성을 위한 좀 더 강력한 능력들과 보살핌의 사이클을 넓혀 자유영역을 증가시켜야 한다. 이는 존재를 일체성으로부터 분열시키고 사로잡는 젠더의 개념들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사상을 기초로 한 통합적 페미니즘의 관점은, 자아의 세부적인 발달단계와 자아를 초월하여 발달하는 의식의 스펙트럼에 대한 이해를 통해 여성의 발달에 조력하는 지도를 제공하는 것이다. 섹스와 젠더의 결합이 발달과 함께 변화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젠더의 변화를 ‘밈(mememes)’의 첫 번째 층 사고(생계수

준)와 두 번째 층 사고(존재수준)에서의 틀로 이해해 볼 수 있다. Ballin(2014)은 발달의 낮은 수준에서는 남자는 남성적이고 여자는 여성적이라는 방식으로 섹스와 젠더가 융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심리적 영적인 발달이 진행될 때 조건화된 심리가 탈동일시 되어, 유형의 구분이 희미해지고 인간의 모든 특성이 발현된다고 한다. 두 번째 층 의식수준으로 발달은 성역할에서의 자유, 유동적인 동일시, 확장된 탈동일시를 성취하게 할 것이다. 자아초월적 젠더 의식이란 다양한 젠더 특성과 자질들이 통합되고, 여러 유형들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통합사상은 개인이 비이원상태라는 본질로 나아갈 때, 모든 특성들, 유형들, 성격들도 초월될 것이라고 본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통합적 페미니즘은 젠더를 주로 발달의 관점으로 이해하는데, 이러한 관점은 다른 젠더 이론이나 여성주의에서 주목하지 않는 부분이다. 통합사상은 젠더를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구성물로 이해하면서, 근대와 탈근대에서 젠더가 다르게 작동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탈근대에서 드러날 개인 내면의 변화와 자유영역의 증가에 대한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시대와 문화와 신념들이 변화하고 있지만, 가부장제 현실에서 억압과 차별은 존재하며,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남녀구분과 젠더이데올로기, 사회구조들은 견고하다. 개인을 이해할 때 조건화된 자기와 초월적 자기라는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가져야 하는 것처럼, 탈근대의 영적자기로의 발달을 위한 훈련은 개인 내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정치·문화적 현실을 바꾸는 노력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Nicholson(2014)은 “젠더 이론들의 온전한 복잡성에 관여하지 않는 Wilber 진영의 통합이론은

5) 밈은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 리처드 도킨스가 그리스어의 문화적 모방이란 의미의 mimeme란 말에서 만든 용어다. 이후에 백과 코완이 나선역학(spiral dynamics)이론을 통해 인간 존재의 발달과 진화 수준, 문화와 사회가 가지는 진보와 후퇴, 다양한 힘들의 충돌과 조화의 문제를 다루는 주요개념으로 ‘밈’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밈은 세계관, 옷 입는 스타일, 정부 형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는 심리구조, 가치체계, 적응양식이다. Wilber는 발달구조론에 나선역학(spiral dynamics)이론을 차용하여 직선적 의식발달 모형을 다양한 발달 노선으로 통합하기 위해 밈의 개념을 통합하였다. 밈의 첫 번째 층 사고는 ‘생계수준’이며, 두 번째 층 사고는 ‘존재수준’이다.

섹스와 젠더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는데 실패해 왔다”고 평가하였다. 통합이론이 젠더에 대한 적절한 관점과 지도를 가지기 위해, 남성과 여성의 삶의 맥락에서 사회적으로 젠더가 체현되는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 의식발달 모델과 성별 유형

Wilber사상 중 ‘유형’(types)은 IOS(통합운영체제: Integral Operating System)에서 사상한, 운 수준, 라인, 상태와 더불어 중요한 5가지 요인 중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요소들에 대한 설명과 비교할 때 자세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유형은 모든 발달 라인의 각 수준에서 나타나는 ‘하위성격’으로,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성역할이다. 모든 사람은 여성 원리와 남성원리를 동시에 가지며, 여성적 유형은 교류를 지향하고 남성적 유형은 행동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건강한 여성원리는 관계, 돌봄, 동정심을 지향하고 건강한 남성원리는 힘과 자율성과 독립심을 지향한다(Wilber, 2007/2014). Marquis(2008/2011)에 따르면 유형은 인간 조건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한정적이고 부분적이다. 내담자는 어느 정도 유형에 의해 한정되고 제약을 받기 때문에 유형을 이해하는 것은 임상에서 개인의 특수한 발달적 여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Wilber의 구조로 이해한다면 유형은 좌상상한에 있는 자기의 발달라인의 하위성격이며, 발달라인은 준독립적인 자기의 지류다. 도덕성, 이타성, 정체성, 정서에 각각 성별유형이 있고, 이들은 준독립적으로 발달한다는 것이다. 정서라인을 예로 들어보자. 남성과 여성은 성역할 기대를 인식하면서 사회화되기 때문에

정서표현의 성차가 발생하고, 대인관계 맥락에 따라 정서표현이 달라진다(용정순, 최훈석 2015). 또한 부모나 또래집단, 지역사회 등 사회·문화적 맥락과 역할, 자아정체성, 가치관의 발달 등에 영향을 받아 정서가 발달한다. 그렇다면 각각의 자기의 발달라인은 준독립적이기보다, 각 라인들 간에 경계는 열려있고 상호영향을 받으며, 다른 상한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변화 발달하는 것이다. 통합사상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설명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Hildebrandt(2014)은 통합사상이 순환(cycles)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상한, 수준, 라인, 상태, 유형들로 구성되어 있는 AQAL이 어떻게 순환되고, 순환을 통해 개인의 심리나 행동에 특정 패턴이 형성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복잡한 상호작용을 묘사하기 위한 적절한 기제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AQAL에 현상을 축소시켜 배치하면 맥락을 놓칠 수 있다.

성별유형학은 다른 유형(에니어그램, MBTI 등)을 나누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함의한다. 자녀가 에니어그램의 4번 유형 같지 않다고 걱정하는 부모는 거의 없다. 그러나 부모들은 소년이 충분히 남성스럽지 않거나, 소녀가 여성스럽지 않은 것에 혹은 드물게 그 반대의 경우에 걱정한다(Bailin, 2014). 통합사상은 자아의 초월이나 상승적 발달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수평적 구조인 성별유형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되었다. Wilber(2000/2015b)는 보다 완전한 통합지도 제작을 위해 성별유형, 성격유형 등을 포함하는 의식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 젠더를 타당도가 검증되지 않은 성격유형들과 “유형” 요인으로 함께 구조화한 것도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성별

유형학이 여성의 경험이나 권리를 제한하고 박탈하는데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인식함과 동시에, “성적 차이는 중요한 인간 상호작용 영역에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차이를 대변할 수 있다는 통찰력(Surrey, 1991)”을 유지하는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

### 자아초월적 여성주의상담의 기초를 위한 통합사상의 유용성

자아초월적 여성주의상담이란?

자아초월 심리학(tranpersonal psychology)의 ‘자아초월’은 ‘개인적인 것과 그것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개인적·인습적·개체적 수준을 넘어서는 발달을 의미한다. 자아실현을 넘어서는 지속적인 발달을 위해서 영성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일찍이 Jung(1963; Sperry, 2010에서 재인용)은 심리학과 영성이 영혼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영성이 영혼의 문제를 직접 다루므로써 심리학에 대해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영성을 강조하고 심리치료가 인간의 영적 수준의 문제까지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오세준, 2012). 우리나라에서 자아초월여성주의상담의 방향성과 명제를 제시한 것은 김민예숙(2009, 2010)의 연구가 유일하다. 여성주의상담과 자아초월심리학의 통합인 자아초월적 여성주의상담은 내담자가 본질적으로 존재 자체이지만, 이것을 잊고 젠더화 등에 의해 조건화된 심리와 동일시되어 있다고 이해한다. 여성은 몸을 가지고 몸의 맥락에서 몸과 심리로 살지만 그것의 허상을 자각하고 존재 자체로 존재하는 가능성을 찾는 것이다(김민예숙, 2010). 인간은

태어나서 사회적 맥락 속에 위치되고 조건에 영향을 받지만, 동시에 사회 속에서 개인의 조건을 초월한 영적인 존재이다. 김민예숙(2010)은 이러한 이해를 위해 “존재의 빛으로 조망 한다”는 여성주의상담의 여섯 번째 원리를 제시했다.

여성주의가 ‘평등한 삶’을 지향한다면 자아초월적 여성주의상담은 ‘평화로운 삶’, ‘평등이 있는 평화’로운 삶을 목표로 한다(김민예숙, 2010). 자아초월적 여성주의상담은 평등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면서 개인의 조건화를 넘어서서 초개인적 수준의 평화라는 존재의 근원을 목표로 하는 점에서, 기존의 여성주의상담이나 자아초월상담들과 다르다. 다른 자아초월심리학은 존재의 근원을 목표로 하지만, 평등을 가치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 세계에서 조건화된 내담자 문제에 대한 이해, 상담관계, 상담의 목표 설정에서 사회정치적 맥락과 권력 관계에 대한 이해를 중심에 두지 않는다. 자아초월적 여성주의상담은 평등을 지향하며 자아의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자아를 초월하여 본연의 존재를 발현하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상대세계와 절대세계를 동시에 조망한다.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여성심리학회 여성주의상담연구회는 김민예숙(2010)의 자아초월여성주의상담의 명제들에 의거해 자아초월TFT를 구성하고 2013년에 자아초월적 여성주의상담을 위한 활동 목표를 “상대(자아)세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여성주의상담 이론을 절대(참나)세계와 연결시키는 것으로 하고, 세부목표로 ‘여성과 소수자에게 적절한 감정과 탈동일시키는 방법 찾기, 여성과 소수자에게 적절한 참나를 찾는 방법 찾기, 여성과 소수자에게 적절한 자아와 참나를 왕복하는 방법 찾기’(고은희, 2014)”로 정했다.

### 여성주의상담의 새 모델을 위한 통합사상의 유용성

1980년대 미국의 여성주의상담은 정신분석, 인지행동치료, 게슈탈트치료 등과의 통합을 시도하였고, 90년대에는 여성주의상담을 위한 새 모델을 찾게 되었다(김민예숙, 2011). 자아초월여성주의상담은 여성주의상담의 새 모델이 될 수 있다. Enns(2004/2009)는 새로운 여성주의상담 모델을 개발함에 있어 “여성주의 이론, 심리치료 이론, 여성주의상담 간의 교차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지 않는다면, 주관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명확한 이론적 근거는 없는 사상 더미를 짜 맞추는 가능성”을 경고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주의상담에 자아초월적 접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결합될 이론이 생겨난 역사적·문화적 맥락, 이론의 논의와 가정, 이론의 목표와 사회변화의 함의를 검토하고 여성주의이론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1993년 여성주의 실천에서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전미 대회에서는 여성주의상담의 심리학적 실천을 위한 아홉 가지 특성을 정의했다(Enns, 2004/2009). 그 중 주요한 다섯 가지 특성은 자아초월심리학에 부족한 여성주의상담의 맥락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자아초월적 여성주의상담 모델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필수적이다.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 여성주의 이론은 정치적 기획이며 사회변혁의 목표와 관련되어 있다. ②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③ 젠더는 여성억압의 중요한 측면으로 다른 억압들과 상호작용한다. ④ 개방적인 자아 모델과 발달 모델을 추구하며, 개인이 가진 복합적 주관성을 존중한다. ⑤ 사회적·문화적 맥락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고통의 원인이 복잡하고 다방면에 걸쳐 있음

을 인정한다.

통합사상이 뿌리를 두고 있는 자아초월심리학과 서구의 여성주의 제2물결은 같은 시기인 1960년대 후반 미국의 정치사회적 변화와 반문화운동의 흐름 속에서 탄생하였다. 두 학파는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를 병리적으로 보지 않으며, 의식향상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의식발달을 추구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다. 여성주의는 개인적 성장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개인의 변형과 사회적 변화를 함께 추구하는 방식으로 의식향상에 조력한다. 자아초월심리학은 의식의 변형된 상태, 앞의 대안적 방식, 자기인식, 개성화나 전인성 같은 개인적 성장과 관련하여 의식을 높이는 방식을 발전시키고 있다(Brooks, 2010). 반면, 통합사상은 ‘온 수준, 온 상한적 접근을 사용하여, “개인의 사고와 자기-경험(좌상)만을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에 똑같이 책임이 있는 사회적 체계(좌하) 역시 변형시킬 필요성(Marquis, 2008/2011)”을 강조하기 때문에 여성주의상담과 자아초월심리학의 교차점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아초월적 여성주의상담을 위해 여성주의상담이 통합사상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의식이 이전의 낮은 단계를 포함하며 상위 의식으로 초월하여 발달한다는 홀라키적 개념이다. 젠더의 이원성에서 출발한 여성주의상담이 이원성을 넘어서는 시도로 자아초월적 여성주의 상담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통합사상의 포함하여 초월한다는 상승적 진화의 관점은 이원론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전개인, 개인, 초개인이라는 의식성장의 관점은 내담자의 주체성과 자아의식을 강화하면서, 자아의식을 넘어서는 성장으

로까지 조력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사상학적 통찰이다. 통합사상은 존재의 네 가지 차원을 제시하며, 심리내적 측면뿐만 아니라 집합적/외현적 차원에서 내담자를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통합적 관점으로 보면, 한 개인의 심리적 발달은 서로가 서로의 일부를 이루는 적어도 네 가지의 구별되는 차원을 지닌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된다(Marquis, 2008/2011). 이는 여성주의상담의 내담자 이해와 관련된 원리(김민예숙, 2013)인 “개인은 사회적·정치적 위치를 가진다”와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와 공유되는 관점이다. 즉 통합사상의 사상학은 여성주의상담이 ‘개인이 처한 외적 조건이 내담자의 자극을 결정하며, 개인은 사회적·정치적 맥락과의 고유한 상호작용을 내면화한다’는 것의

관점과 일치한다.

사상학 구조를 활용하여, 자아초월적 여성주의상담의 관점으로 내담자를 이해하면 표 4와 같이 개인을 네 가지 차원의 주관적, 객관적, 상호주관적, 상호객관적 측면의 조망으로 통찰할 수 있다. 표 4는 Marquis(2008/2011)의 『통합심리치료』의 “<표 2-1>상담과 심리치료에서의 사상학”을 연구자가 수정한 것이다.

통합적 관점과 여성주의 관점을 결합한 자아초월적 여성주의상담은 기존 자아초월심리학이 절대 세계만을 중요시하고 상대 세계에서 발생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은 듯 설명해 온 것을 넘어 상대 세계의 현상에 대한 맥락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을 임시적 자아와 자아초월이라는 맥락 속에서 바라보고, 자아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까지 조력

표 4. 자아초월적 여성주의상담을 위한 내담자의 사상학적 이해

	내면	외면
	<b>좌상상한 Upper Left</b>	<b>우상상한 Upper Right</b>
개별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담자의 자기-경험에서 주목할 만한 패턴</li> <li>• 자기-이미지, 자아개념</li> <li>• 젠더 정체성(남성성, 여성성/ 다원적 정체성), 성 정체성</li> <li>• 정서, 사고, 동기</li> <li>• 정치적, 영적 믿음 또는 경험</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의도의(주관적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목할 만한 행동 패턴</li> <li>• 젠더적 표현: 사회적 성 제시, 성별화 된 행동</li> <li>• 건강상태, 유전적 질병, 의학적 장애</li> <li>• 약물 남용, 약물 치료</li> <li>• 수면패턴과 휴식, 운동/다이어트</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행동의, 신체적인(객관적인)</b></p>
	<b>문화적인(상호주관적인)</b>	<b>사회적(상호객관적인)</b>
집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담자의 민족성, 가족 역동 경험</li> <li>• 내담자의 의미-구성 체계(들)</li> <li>• 젠더/섹스 고정관념</li> <li>• 성 역할, 문화/윤리 가치, 가족의 가치</li> <li>• 치료적 관계-내담자와 상담자의 평등</li> <li>• 주요한 타인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li> <li>• 감정에 부여한 문화적 가치</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좌하상한 Lower Lef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담자의 사회경제적 지위</li> <li>• 주어진 젠더</li> <li>• 건강보험/법률 관련 평가</li> <li>• 가정 환경, 직업 환경, 자연 환경</li> <li>• 치료의 맥락(입원, 외래, 상담 회기와 빈도, 개인/집단/가족치료)</li> <li>• 내담자의 증상을 초래하는 사회시스템</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우하상한 Lower Right</b></p>

할 수도 있고 자아를 넘어 초월적 의식발달에 까지 성장하도록 조력 할 수도 있다.

여성주의상담은 내담자이해에 젠더와 권력을 중심에 두며, 한 사람을 이해하려면 개인의 문제를 일으킨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전제한다(Corey, 2009/2012). 통합사상은 권력을 중심에 두는 관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성주의상담의 고유기법인 권력분석과 성역할 분석이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자아초월적 여성주의상담은 여성이 자신과 타인의 관계, 세계 속에서 자신에 대하여 책임지는 역량을 증진하고, 개인이 몸, 마음, 정신과 더불어 영적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시키고 지속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다. 개인적인 심리를 인정하고 그것에서 출발하지만 존재자의 심리를 정화하고 그 심리에서 탈동일시하여 존재 자체로 존재할 가능성을 찾는 자아초월적 여성주의상담은 여성의 삶의 질과 의식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여성심리에 중요한 섹스와 젠더 이슈를 통합사상을 중심으로 '온 수준, 온 상한적 접근으로 조망하는 Wilber의 통합적 페미니즘을 여성주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살펴 보았다. 또한 자아초월적 여성주의상담의 기초를 위한 통합사상의 유용성을 검토했다. 연구의 요약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 Wilber의 통합적 페미니즘과 젠더 관점

통합적 페미니즘과 통합사상의 젠더관점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드러난다.

첫째, 통합적 페미니즘은 섹스와 젠더에 대한 여성주의 이론들의 서로 다른 조망을 통합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는 메타이론이다. 수많은 여성주의 이론들은 섹스와 젠더에 대해 보통 하나의 상한에 중점을 두는 배타적인 경향이 있는데, 통합적 페미니즘은 이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젠더는 양성간의 유의미한 생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문화적 요소와 세계관의 역할에 영향을 받는다. 세계관은 기술 경제적 토대와 사회구조와 밀접하다. 남성과 여성은 성중립적인 발달수준을 거치지만, 남성은 독자성과 에로스, 여성은 공동성과 아가페에 중점을 두고 변환하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의 자기는 좀 더 관계적으로 구축된다.

둘째, 통합사상은 발달에 따라 젠더가 변화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다른 젠더이론에서 주목하지 않은 부분이다. Wilber의 이론은 개인의 발달과 사회문화발달에 유사한 패턴이 있고, 개인과 인류가 동일한 의식구조를 통과한다는 체계이다. 개인발달의 수준이 전개인, 개인 단계일 때는 생물학적 성이 젠더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으나, 개인단계의 후기부터 통합이 일어나 초월적 단계에서 젠더 이분법을 넘어서는 자아초월적 젠더의식이 가능하다. 젠더 이분법은 근대에 형성되었으며, 탈근대에는 젠더 이분법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된다.

셋째, Wilber의 구조에서 젠더는 성별유형으로 구조화된다. 모든 사람은 여성원리와 남성원리를 동시에 가진다. 자기의 발달라인-도덕성, 이타성, 정체성, 정서, 대인관계 등-마다 성별유형이 있고 준독립적으로 발달한다.

Wilber(2000/2015b)는 완전한 통합지도를 위해 성별유형 등의 다양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성별유형의 한계를 인정했다.

#### 여성주의관점에서의 통합적 페미니즘의 비판적 고찰

통합적 페미니즘과 통합사상의 젠더 관점을 여성주의적으로 새롭게 고찰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드러난다.

첫째, Wilber가 1998년에 제안한 통합적 페미니즘은 여성주의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고 내용이 부실하여 메타이론의 특성을 살리지 못했다. 여성주의 이론들을 통합적 페미니즘의 사상학적 구조로 새롭게 분석해 보면 각 이론들은 모든 상한들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젠더를 이해하고 있으며, 젠더정체성과 젠더 체계는 고정된 이원적 체계가 아니라 각 분면간의 순환적 사이클 내에서 계속적으로 구성되는 연속체이다. 여성주의 이론들은 발생 초기에 하나의 상한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는 젠더 억압의 원인을 설명할 때 사회문화적이고 정치적 측면의 강조점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둘째, 통합적 페미니즘의 강점은 자아의 세부적 발달과 자아를 초월해 발달하는 지도를 제공하고, 섹스와 젠더가 발달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에 주목한 것이다. 그러나 Wilber의 젠더 관점은 전체적으로는 발달주의적 관점을 취하지만 전개인, 개인 단계에서는 생물학적 영향력을 강조하는 본질주의적 한계가 있다. 통합사상은 탈근대에서 젠더가 다르게 작동할 것이라고 낙관하는데, 탈근대의 자아초월적 젠더의식이나 영적자기로의 발달은 사회·경제·정치·문화적 현실을 바꾸는 노력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 통합이론의 젠더에 대한 지도가 유용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의 삶의 맥락에서 젠더가 체현되는 방식과 권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셋째, 통합사상은 젠더가 상한, 수준, 라인, 상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AQAL의 순환속에서 형성되는 패턴을 명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발달라인의 하위구조인 성별유형로 젠더를 포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개인의 젠더는 자아정체성, 가치관, 의식수준, 대인관계, 사회문화적 맥락과 역할들과 상호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면 변화한다. 성별유형학은 다른 유형을 나누는 것과 달리 정치적 의미를 함의하고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차이가 형성되는 과정과 영향에 대한 민감한 통찰력을 유지해야 한다.

#### 자아초월적 여성주의상담의 기초를 위한 통합사상의 유용성

첫째, 자아초월적 여성주의상담이 기존의 자아초월심리학과 여성주의상담과 다른 점은 평등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면서 개인의 조건화를 넘어서서 초개인적인 수준의 평화라는 존재의 근원을 목표로 하는 점이다. 자아초월적 여성주의상담은 자아의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이를 초월하여 본연의 존재를 발현하도록 상대세계와 절대세계를 동시에 조망한다.

둘째, 여성주의상담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통합할 이론의 역사적·문화적 맥락, 이론의 목표와 사회변화의 함의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통합사상의 뿌리인 자아초월심리학은 1960년대 미국의 정치사회적 변화와 반문화운동속에서 탄생했고, 의식의 발달

과 변형을 추구한다. 통합모델은 인간의식의 발달 지도와 초월적 발달의 스펙트럼을 제시하고 있으며, 의식발달을 위해서는 개인의 사고와 심리만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에 책임이 있는 사회적 체계를 변형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여성주의상담의 내담자이해에 관한 원리와 유사한 관점이다. 이러한 통합사상의 특성은 자아초월적 여성주의상담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유용하다.

셋째, 젠더의 이원성에서 출발한 여성주의상담이 이원성을 넘어서는 시도로 자아초월적 여성주의 상담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통합사상의 포함하여 초월한다는 상승적 진화의 관점은 이원론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공할 수 있다. 전개인, 개인, 초개인이라는 의식성장의 관점은 내담자의 주체성과 자아의식을 강화하면서, 자아의식을 넘어서는 성장을 동시에 조력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존재에 대해 인식론으로서 사상학적 통찰은 다른 자아초월이론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관점이다.

## 시사점

본 논문은 통합적 페미니즘이 메타이론으로서 여성주의이론을 세밀하게 포괄할 수 있도록, 여성주의이론과 젠더를 사상학적 구조로 유기적으로 새롭게 분석하였다. 또한 통합사상이 자아초월여성주의상담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유용한 부분을 분석하였다.

Ken Wilber의 통합사상을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분석한 결과 통합적 페미니즘의 발전과 자아초월여성주의상담의 기초를 위해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 통합사상이 정체성의 다양성을 포괄하면서 젠더 이원론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여

성주의 진영의 최근의 젠더와 섹스 연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 젠더이론은 버틀러에 의해서 젠더뿐만 아니라 섹스도 담론이며 불변의 것이 아니라 문화적 구성물에 불과하다는데 까지 나아갔다(민경숙, 2011). 인간은 태어나면서 남자아이, 여자아이라는 생물학 성을 부여받는데, 이는 그 시대의 젠더규범과 규약에 따라 성별이 주어지는 것으로 섹스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호명 받는다. 또한 여성주의 인식론은 젠더가 사회구조적 차원, 대인관계 차원, 개인적 차원에서 고정된 종속변수가 아니고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수준에 의해 끊임없이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이러한 여성주의 인식론은 통합적 페미니즘이 성적 정체성과 성적지향 등에 대한 조망을 넓히는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할 것이다.

둘째, 통합사상이 보다 입체적이고 임상적인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성주의상담이 젠더와 권력을 중심에 두면서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맥락 속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해하고, 미시적, 거시적 조건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관점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여성주의상담 관점의 사회정체성 분석, 성역할 분석, 권력분석 등을 수용하고 활용해야 한다. 사회정체성 분석은 젠더 정체성이 다른 측면의 정체성들과의 동일시나 분리를 통해 복합적으로 교차하며 구성된다는 점을 드러내준다. 여성주의상담의 성역할/젠더역할 분석은 성별화/젠더사회화가 개인의 정체성과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다차원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권력분석을 사용하면 권력과 자원의 접근에 대한 불평등이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여성주의상담의 분석 도구들은 사상학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여성주의에 맥락적 이해와 다차원

적 관점을 제공할 것이다.

셋째, 통합사상의 의식발달에 대한 지도와 발달 잠재력에 대한 이론은 여성주의상담이 내담자의 문제나 증상을 발달스펙트럼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사상한에 의한 통찰은 어느 상한이 취약한가를 점검 할 수 있고, 상한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 더 높은 의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상한이 조화롭게 발달해야 한다는 관점을 견지하면서, 사상한이 맞물려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발달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자기경험과 초월적 의식발달, 영적 체험에 대해 발달단계에 따른 다른 해석이 가능해진다. 내담자의 발달수준을 이해하고, 젠더를 포함한 이원성을 넘는 발달에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담자가 병리적 현상과 영성의 위기간의 차이를 알아야 하고, 탈동일시를 도울 수 있는 명상과 같은 영적기법을 통합하고, 초개인적 발달에 노력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키워야 한다.

#### 후속 과제

본 연구는 여성의 경험과 젠더의식의 변화를 초개인적 발달과정까지 포함하여 조망하는 통합적 페미니즘의 발전을 위하여 여성주의 인식론과 여성주의상담과의 상호교류를 제안하였다. 연구자는 본 연구가 통합적 페미니즘의 발전과 더불어 자아초월 여성주의상담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후속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통합적 페미니즘이 보다 입체적이고 임상적인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여성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문화적·사회적·정치적 맥락

속에서 젠더와 권력을 중심에 두고 이해하는 여성주의상담의 관점과 원리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통합사상의 AQAL을 Ballou, Matsumoto와 Wagner(2002)의 '여성주의적, 다문화적, 생태학적 새패러다임 모델'이나 김민예숙(2013)의 여성주의상담 '구조화 모델'의 사례개념화 등과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여성의 초월적 발달의 지도를 제공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나선역학구조 첫 번째 층의 정점인 녹색 밈의 의식 상태에 있는 여성들, 두 번째 의식 층인 노란색, 청록색 밈으로 진화한 여성들의 영적인 경험과 심리와 젠더의 변화, 동일시와 탈동일시 과정 등의 연구는 지도제공에서 한 걸음 나아가 개인적 의식에서 초개인적 단계로 발달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성별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함께, 발달라인 중 성적 정체성 등 성과 관련된 자기의 발달라인들이 사상한적 관점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AQAL의 상한, 수준, 라인, 상태, 유형간의 상호작용과 순환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강남순 (2002). 페미니스트 신학: 여성·영성·생명.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고미송 (2010). 그대가 보는 적은 그대 자신에 불과하다: 불교적 관점에서 본 여성주의 인식론. 서울: 푸른사상.  
고은희 (2014). 장자의 '성심(成心)초월'과 여성주의상담 원리의 상관성 연구,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예숙 (2009). 자아초월적 여성주의상담. 김민예숙여성주의상담연구실 6회 아카데미 자료집, 25-28.
- 김민예숙 (2010). 자아초월적 여성주의상담. 여성건강과 치유센터 준비위원회 제1차 여성주의상담 워크숍 자료집, 24-27.
- 김민예숙 (2011). 미국과 한국의 여성주의상담 역사 비교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Vol. 16. No 2, 197-218.
- 김민예숙 (2013). 여성주의상담 원리의 역사에 관한 연구 여성주의상담: 구조화모델 워크북. 서울: 한울
- 문일경, 김명권 (2008). 통합심리학 연구의 세 가지 주요 흐름: 역사적 맥락과 향후 과제. 상담학연구. 9(2), 863-875
- 문일경 (2009). Ken Wilber의 통합이론에 기초한 심리치료의 통합적 접근, 상담학연구. 10(2), 1277-1290
- 민경숙 (2011).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이론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자연과학연구소논문지 16(1), 1-18,
- 박선화 (2012). 월버의 통합사상과 생태여성주의의 비교 연구. 서울불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세준 (2012). 통합적 영성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서울불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용정순, 최훈석 (2015). 성격 특성, 정서 및 사회적 행동의 성차. 한국여성심리학회(편). 여성심리학 (pp. 205~236) 서울: 학지사
- 이재경 외 공저 (2007). 여성학, 서울: 미래 M&B
- 이한영 (2013). 삶과 영적 성장: 켄윌버 사상의 신학적 이해. 서울: 도서출판 문사철
- 조혜자 (2002). 비본질주의 관점에서 본 여성의 자아정체성.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7(3) 115-130
- Bailin, R. A. (2014). Feminine, masculine, female, and male in the integral space. *Integral Voices on Sex, Gender, and Sexuality: Critical Inquiries*, 165.
- Ballou, M., Matsumoto, A. & Wagner, M. (2002). toward a feminist ecological theory of human nature: Theory building in response to real-world dynamics. In M. Ballou & L. S. Brown (Eds.). *Rethinking mental health and disorder: Feminist perspectives* (pp.99-114). NY: The Guilford Press.
- Brooks, C. (2010). Unidentified allies: Intersections of feminist and transpersonal thought and potential contributions to social change. *transpersonal Studies*.
- Brooks, C., Ford, K., & Huffman, A. (2013). Feminist and Cultural Contributions to Transpersonal Psychology. *The Wiley-Blackwell Handbook of Transpersonal Psychology*, 612-625.
- Brown, Laura S (2012). 여성주의상담의 전복적 대화 [Subversive Dialogues] (김민예숙 · 강문순 · 손연주 역), 서울: 한울 (원전은 1994년에 출판).
- Butler, J. (2013). 젠더 트러블: 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조현준 옮김). 파주: 문학동네 (원전은 2011년 출판)
- Corey, G. (2012). 여성주의 치료. 조현춘, 조현재외 공역, 심리상담의 이론과 실제 (pp361-395) 서울: 센케이저리닝코리아. (원전 2009년에 출판)
- Debold, E. (2014). A Deep Integral View on the Future of Gender. *Integral Voices on Sex, Gender, and Sexuality: Critical Inquiries*, 63.

- Enns, C. Z. (2009). 여성주의와 상담: 기원, 주제, 다양성[Feminist theories and feminist psychotherapies: origins, themes, and diversity] (김민예숙 · 손연주 옮김), 파주: 한울아카데미. (원전은 2004년에 출판).
- Friedman, H. L., & Hartelius, G. (Eds.). (2013). *The Wiley-Blackwell handbook of transpersonal psychology*. John Wiley & Sons.
- Gilligan, C (1997). 다른 목소리로[In a different voice]. (허란주 옮김). 서울: 동녘. (원전은 1982년 출판)
- Hildebrandt, T. H. (2014). An Integral Map of Sexual Identity. *Integral Voices on Sex, Gender, and Sexuality: Critical Inquiries*, 121.
- Laqueur, T. (2000) 섹스의 역사: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남성과 여성의 변천사[Making sex: body and gender from the Greeks to Freud] (이현정 옮김). 서울: 황금가지, 2000(원전은 1992년 출판)
- Marquis, A. (2011). 통합심리치료[The integral intake: A guide to comprehensive idiographic assessment in integral psychotherapy]. (문일경 옮김).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8년에 출판)
- Nicholson, S. E. (2014). Defining Woman. *Integral Voices on Sex, Gender, and Sexuality: Critical Inquiries*, 13.
- Surrey, J. L. (1991). The "self-in-relation": A theory of women's development. In Jordan, J. V. (Ed.). *Women's growth in connection: Writings from the Stone Center*. (pp. 51~66) Guilford Press. (여성주의상담연구회 옮김: 미간행)
- Washburn, M. (2003). Transpersonal dialogue: A new direction. *Journal of Transpersonal Psychology*, 35(1), 1-20.
- Wright, P. A. (1995). Bringing women's voices to transpersonal theory. *ReVision* 17(3): 3-10
- Wright, P. A. (1996). Gender issues in Ken Wilber's transpersonal theory. *REVISION-CAMBRIDGE MA THEN WASHINGTON*, 18, 25-37.
- Wilber, K. (1995). *Sex, ecology, spirituality*. Shambhala Publications.
- Wilber, K. (1998). A more integral approach. In Rothberg, D. J., Kelly, S. M., & Kelly, S. (Eds.). *Ken Wilber in dialogue: Conversations with leading transpersonal thinkers*. Quest Books.
- Wilber, K. (2004). 모든 것의 역사[A]brief history of everything]. (조효남 옮김) 서울: 대원. (원전은 1996년 출판)
- Wilber, K. (2007a). *Integral spirituality*. Shambhala Publications.
- Wilber, K. (2007b). 감각과 영혼의 만남[The Marriage of Sense and Soul]. (조효남 옮김). 일산: 범양사 (원전은 1998년 출판)
- Wilber, K. (2008). 통합심리학: 의식, 영, 심리학, 심리치료의 통합[Integral Psychology: Consciousness, Spirit, Psychology, Therapy]. (조옥경 옮김). 서울: 학지사(원전은 2000년 출판)
- Wilber, K. (2014). 통합비전: 켄 윌버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쉽고 핵심적인 입문서[The integral vision: a very short introduction to the revolutionary integral approach to life] (정창영 옮김). 파주: 김영사(원전은 2007년 출판)
- Wilber, K., Patten, T., Leonard, A., & Morelli, M. (2014) (건강, 웰라이프, 그리고 영적 성장을 위한) 켄 윌버의 ILP[Integral life practice. Shambhala Publications] (안희영, 조효남 공

-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8년 출판)
- Wilber, K. (2015a). *켄 윌버의 아이 오브 스피릿: 영적 관조의 눈*[Eye of spirit: an integral vision for a world gone slightly mad]. (김철수 · 조옥경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98년에 출판)
- Wilber, K. (2015b). *모든 것의 이론*[A theory of everything]. (김명권 · 민희준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0년 출판)
- Worell, J. & Remer, P. (2004). *여성주의 상담의 이론과 실제*[Feminist perspectives in therapy: empowering diverse women]. 김민예숙 · 강김문순 옮김, 서울: 한울. (원전은 2003년에 출판)
- 1차원고접수 : 2016. 04. 24.  
심사통과접수 : 2016. 08. 31.  
최종원고접수 : 2016. 09. 08.

## A Feminist study on the Wilber's integral feminism

Kim Eun Ah

Seoul University of Buddhism

The aim of this study revolves on a critical examination of Wilber's integral feminism and his gender perspective from a feminist perspective in order to improve integral feminism and discover basic principles of transpersonal feminist counseling. A variety of Wilber's writings and studies on gender conducted by the Integral Community were reviewed. The literature review centers on Wilber's perspective on feminism, the consciousness of sex and gender, typology of ego development. Integral feminism expands women's experiences and gender identities to transpersonal development beyond pre-personal and personal aspects. The author developed an integral map on gender and feminism using an all quadrant all level (AQAL) model of integral feminism. The integral theory explains gender in the context of the consciousness development of humankind and individuals. From this perspective, gender and gender identities, which have been constructed in modern society is expected to be transcended as society evolves into a post-modernism phase. Individuals are expected to have transpersonal consciousness of gender accompanied by de-identifying with all traits along with psychological and spiritual development. Gender typology requires sensitive insights into a process and influences of forming differences as it has political implications and influence on individual development, which is different from other typologies. In order for integral feminism to offer a more detailed map and clinical implications, it needs to incorporate a perspective from feminist counseling that addresses women's issues based on cultural, social, and political contexts, focusing on gender and power. Feminist epistemology and feminist counseling techniques, such as a gender analysis and a power analysis, are beneficial to understand the close relationships among four quadrants. The spectrum theory that includes transpersonal aspects of human consciousness development and the integral theory that emphasizes the transformation of social systems along with individual psychology for consciousness development would benefit to found transpersonal feminist counseling.

*Key words* : *integral feminism, feminist counseling, transpersonal feminist counseling, gender, gender analysis, gender typology*